공동체의 시작과 끝

컴퓨터학과 2013210061 채윤병

소크라테스는 국가를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그러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또 텔렘 수도사들은 “원하는 바를 행하라”는 조항을 따르며 산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요되는 것은 없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공동체를 올바른 쪽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개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공동체이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행복까지 그 목적에 포함되었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국가의 존재 의의는 모두의 행복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상적 논의를 두 지문에서 하고 있는 듯하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수호자를 두고 교육과 양육에 힘쓸 경우 국가는 건전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수호자들이 교육과 양육이 제대로 될 경우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텔렘의 수도사들처럼 잘 교육받으면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아도 공동체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에 속하기로 한 개인들은 불행에 빠져 있고 아데이만토스가 말했듯이 우린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공동체는 개인을 위하고 개인은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이상적인 모델은 왜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 문제들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즉 공동체가 개인의 바람대로 나아가질 않는 문제들은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어느 한 집단이 특히 행복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동체는 더 이상 모든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공동체는 끝을 맞이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그 공동체를 형성한 본인들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즉 원치 않은 공동체에 강요당하면서도 그것을 끝내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행복해지는 법은 어쩌면 기존의 공동체와의 단절이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아닐까?